

## 『고백록』 10권의 시점(視點)에서 본 ‘탐욕’과 ‘윤리’\*

문시영 (남서울대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고백록』 10권의 시점에서 본 ‘탐욕’과 ‘윤리’

1. 왜, 『고백록』 10권의 시점인가?
2. ‘cupiditas’로서의 ‘탐욕’과 ‘caritas’로서의 ‘윤리’
3. 성화의 재발견, 사회적 성화에의 관심으로

### III. 나오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34.02>

\* 이 논문은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NICE)의 2016년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집필되었음.  
참고로, 라틴어를 따라 *Confessiones, libro, X*이라고 쓰는 것이 옳겠지만, 검색 및 인용의 편의를 위하여 제목에서는 『고백록』 10권'으로 표기하였다.

---

• ABSTRACT •

---

### Augustine on Avarice from the perspective of *Confessiones*, X.

Moon, Si-Young(Namseoul University)

The question, 'Can Christian overcome the avarice completely and readily?' is the driving force of this research. Especially, this research is related to the meaning of social sanctification. With this sense, this paper seeks an alternative for overcoming of avarice from the perspective of St. Augustine's *Confessiones*, X. Most of all, this research concentrates on the self-portrait of Augustinen after he converted Christianity and appointed the Bishop of Hippo in *Confessiones*, X. Interestingly, Augustine was still facing to many avarice, for example, gluttony, desire for honor, and sexual impulse(*libido*), etc. At the same time, Augustine accepted the commandment of the Bible on continence of avarice(1 John 2:16) and sought the way of overcoming the avarice. In this meaning, *Confessiones* shows three stages of continence as follows: 'cupiditas sine caritas'(past), 'minus caritas'(present), and caritas sine cupiditas(future). According to Augustine, continence of the persistent avarice is not a natural process according to aging but a sanctification empowered by Holy Spirit. Also, this paper puts forward two ethical tasks of Christian in the times of avarice as follows; (1)rediscovering of sanctification as an ethical task, (2)enhancing the concern for social sanctification. Not only should Christians recover the moral consciousness, as found in the concern for sanctification of Reformation, but, Christians in a ages of global avarice should also play a role as a reformer of social morality in terms of the concept of social sanctification.

**Key words:** Ethical Reformation, Avarice, Continence, Sanctification, *Confessiones*.

---

## I. 들어가는 말

탐욕은 불혹(不惑)과 지천명(知天命)을 거쳐 이순(耳順)이 되면서 노화 혹은 소멸되거나 연륜이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성숙되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어떤가? 회심하거나 임직되면 그 순간부터 모든 탐욕이 자동적이고 즉각적으로 극복되는 것일까? 칭의(稱義)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으로 탐욕을 면제받고 성화(聖化)되는 것일까?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개인윤리에 있어서 탐욕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탐욕’이 주도하는 시대에 개인적 성화와 사회적 성화에 힘쓰고 있는가?

이 글은 종교개혁 500주년에 즈음하여, 시민적 비난에 직면한 한국교회가 자성(自省)과 함께 자정(自淨)을 통하여 ‘윤리 개혁’에 힘써야 한다는 전제를 지니고 있다. 개혁과제의 하나로 탐욕의 문제를 상정하면서, 『고백록』(Confessiones)에 주목하는 것은 고전과 현대의 대화를 통해 실천적 관심을 고취하려는 취지이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면서 그의 일생을 지배한 탐욕의 집요함을 고발하면서 성화에 관한 문제의식을 절실히 토로했던 시점, 즉 『고백록』 10권의 시점(視點)에 유의하고자 한다.

## II. 『고백록』 10권의 시점에서 본 ‘탐욕’과 ‘윤리’

### 1. 왜, 『고백록』 10권의 시점인가?

『고백록』만큼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책도 없을 듯싶다. 그에 비례하여 해석의 시도와 가능성이 다양하고 방대하다는 점 또한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풍요로운

해석을 제시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0권의 시점(視點)’에서 접근하려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sup>1)</sup> 흥미롭게도,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연구는 넘쳐나지만, 정작 『고백록』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정이 다르다. 질송(E. Gilson)이 중세철학의 재발견을 강조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큰 의의가 있으나,<sup>2)</sup> 『고백록』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토미즘(Thomism)에 입각한 아우구스티누스 해석에 주력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내에서도 『고백록』 자체에 대한 해석은 많지 않다. 가톨릭철학 및 신학자들에 의해 아우구스티누스 해석이 명맥을 이어왔으며,<sup>3)</sup> 선한용의 『시간과 영원』은 아우구스티누스를 다룬 개신교 신학의 대표적인 저서일 듯싶다.

아우구스티누스 해석에서, 현대의 신학과 철학을 망라하여 가장 큰 울림을 보여준 경우는 니그렌(A. Nygren)의 주장을 둘러싼 논변이라 하겠다. 『아가페와 에로스』(Agape and Eros)에서,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caritas) 개념이 에로스와 아가페의 혼합이며 기독교의 본질에 맞지 않는 극복대상이라고 보았다.<sup>4)</sup> 이 주장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재발견에 기폭제가 되어 버나비(J. Burnaby), 윌리엄스(D. Williams), 다르시

- 
- 1) 이 글에서 사용하는 ‘시점(視點)’이라는 용어는 문학의 ‘전지적 작가의 시점’이라는 용어처럼 내러티브를 풀어가는 방식 혹은 관점이라는 뜻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백록』 역시 하나의 내러티브라는 뜻에서, 적합성이 있어 보인다.
  - 2) 질송(E. Gilson)의 아우구스티누스 해석은 김태규 역,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이해』(성대 출판부, 2010)을 참고하도록 추천한다.
  - 3) 국내에서, 『고백록』을 단일주제로 삼은 글은 라틴원전 번역에 기여한 성염의 글, 『명저탐방: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철학교육연구』 11집(철학교육학회, 1995)을 비롯하여 주로 가톨릭 신학자들에 의해 다루어져왔고, 최근의 개신교 신학자의 글로서 권진한의 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나타난 은총론』, 『신학논단』 80집(연세대, 2015) 등을 참고할 수 있겠다.
  - 4) 니그렌의 아우구스티누스 이해에 대해서는 Anders Nygren/ 고구경 역, 『아가페와 에로스』(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을 참고하도록 권한다. 니그렌의 주장에 대한 논쟁에 관해서는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와 덕 윤리』(북코리아, 2014)에 소개되어 있다.

(M. C. Darcy)와 같은 해석자들이 등장할 장을 마련해주었다.<sup>5)</sup> 다만, 『고백록』의 문제의식을 천착한 것이라기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 전반에 관한 해석상의 거대담론이라는 점에서 이 글의 취지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물론, 『고백록』에 대한 해석의 길은 항상 열려 있다. 『고백록』을 ‘탕자에서 성자로’ 변화된 기록으로 간주하여 예화로 사용하는 설교자들의 관심을 비롯하여, 인문학의 여러 분야 및 신학내 여러 분과학문에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록』을 단일 주제로 하는 연구가 많지 않은 이유는 『고백록』을 학술연구의 대상이라기보다 신앙서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일 듯싶다. 더구나, 『고백록』을 윤리의 관점에서 읽어내려는 노력 자체가 많지 않다.<sup>6)</sup> 이 글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고려하면서도 『고백록』의 윤리에 관심하여 그리스도인의 윤리 개혁을 위한 단초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가 보여준 삶의 변화와 개혁의 발자취를 읽어냄으로써 오늘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통찰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버나비가 말한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시작한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sup>7)</sup> ‘10권의 시점’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10권은 『고백록』의 저술동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곳으로서,<sup>8)</sup>

5)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들을 추천한다. John Burnaby, *amor Dei : A Study of the Religion of St. Augustine*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7 print), Daniel Day Williams, *The Spirit and the Forms of Love* (New York: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81).

6) 『고백록』을 윤리학의 관심사로 상정하는 시도가 많지 않은 데에는 신앙서적에 속하는 것이라는 선입견이 작용한 탓이겠지만, 이것은 『고백록』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일 수 있다. 『고백록』에 대한 윤리학적 관심을 대변하는 책으로 다음 책을 추천한다. John Harvey/문시영 역, 『고백록, 윤리를 말한다』(북코리아, 2011).

7) John Burnaby, *amor Dei : A Study of the Religion of St. Augustine*, 25.

‘구원받은 아우구스티누스의 현재’를 말해주고 있으며, 그가 히포(Hippo)의 주교로 섬기는 당시의 자화상을 보여준다. 당시의 유명세를 따라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었겠지만, 목회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저지르고 있는 현재의 죄에 대해서까지 공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듯싶다. 자칫, 목회자에 대한 탄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시면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던 위험까지도 감수했다는 점에서, 10권의 정황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진정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사실, 『고백록』을 집필할 때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목적이 있었다. 자신을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리고자 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주목할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영적 정황의 ‘현재적’ 자화상을 숨기거나 미화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0권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향한 사랑의 윤리를 실천하고자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슬한 유혹들이 스며들고 있음을 고백한다. 거룩한 가운데 입을 목회자가 되어 있지만, 자신은 거룩한 존재도 아니고 그다지 위대한 인물도 아니며 크게 존경을 받을만한 모범적인 인물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만일 아우구스티누스가 오늘과 같은 소셜 미디어의 정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신의 성직 자체에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제법 규모가 있는 성직이라는 점에서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목회자의 이중생활’ 내지는 ‘과거에도 더러웠고 여전히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목

8) 이에 관해서는 문시영, 『지식을 만드는 지식 천줄읽기: 고백록』(지식을 만드는 사람들, 2008),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읽기』(세창미디어, 2014)를 참고하도록 추천한다.

회자’라는 낙인을 찍기고 남을만한 ‘특종감’이었을 듯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권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여전히 죄와 뒤섞여있나이다!’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거룩할 것만 같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목회자가 안겨주는 충격적인 실망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일까? 혹은 아우구스티누스를 유별나고 변태적인 탐욕 덩어리로 몰아세워야 하는 것일까?

어쩌면, 아우구스티누스가 10권에서 고백한 현재적 자화상은 오래전 어느 한 인물의 특정한 경우라기보다 현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을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 자신도 극복하지 못했던 문제, 즉 탐욕에 관한 현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처지를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10권에서 말하는 탐욕에 대한 고백과 윤리적 처방을 모색했던 자취를 따라가노라면,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탐욕의 해법을 ‘통찰’의 차원에서라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셈이다. 『고백록』 10권의 시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문제의식을 재발견하고 그의 고백에 담긴 통찰을 오늘의 윤리 개혁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10권의 중요성에 관해 참고할 것이 있다. 톰슨(C. J. Thompson)은 『고백록』을 내러티브 윤리(narrative ethics)와 연관 지어 설명하면서, 10권의 가치를 부각시킨다. 톰슨에 따르면, 일반적인 논의 순서를 변경하여 10권에서 13권에 대해 먼저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1권에서 9권까지의 내용을 재해석해야 한다.<sup>9)</sup> 『고백록』을 크게 두 개의 내러티브로 해석해야 하며, 앞의 아홉 권은 아우구스티누스 개인의 내러티브로, 뒤의 네 권은 이보다 더 큰 내러티브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10권부터는 『고백록』의 근본적인 관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우구스티

9) Christopher J. Thompson, *Christian Doctrine, Christian Identity*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9), 특히 76-92를 참고할 것.

누스는 이를 통해 자신의 사적 경험에 지나지 않았을 죄에 대한 고백을 확장시켜 자신의 책을 읽고 전해들은 모든 사람들의 고백으로 승화시킬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톰슨의 요점이다.

내러티브로서의 『고백록』에 대한 이해는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에게서 더욱 분명해진다. 하우어워스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죄’와 ‘회개’, 그리고 ‘은혜’의 내러티브를 통해 마니교를 벗어나고 그 오류들을 논박했던 점에 주목한다.<sup>10)</sup> 하우어워스의 해석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의 이원론을 극복하고 복음의 관점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며 변화를 추구했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듯싶다. 무엇보다도, 아우구스티누스가 ‘복음 이야기’(gospel story)에 다가섬으로써 복음을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내러티브를 따라 자신의 성품을 형성시키려 했던 것이라는 하우어워스의 해석은 중요한 의의가 있어 보인다.<sup>11)</sup> 『고백록』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문제의식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라는 점을 제대로 짚어낸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 『고백록』 10권의 시점은 10권에 한정되지 않는다. 10권을 중심으로 전체 내러티브에 반영된 ‘윤리’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가 10권에서 현재의 자신을 소개하고 ‘기억’을 매개로 삼아 ‘시간’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혼의 팽창’(distentio animae)에 관심하면서 의식 혹은 기억에 대한 성찰을 시간에 대한 실존적 논의로 확장시킨다.<sup>12)</sup> 시간의 계기

10) Stanley Hauerwas, David Burrell, & Richard Bondi, eds., *Truthfulness and Tragedy: Further Investigations into Christian Ethic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7), 32.

11) 같은 책, 34.

12) 이에 관해서는 선한용, 『성 어거스틴에 있어서 시간과 영원』(성광문화사, 1986)을 참고하도록 추천한다. 또한 고백록의 표현들도 같은 저자의 역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대한기독교서회, 2011)을 주로 참고하여 필자의 번역을 적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들 즉 ‘과거-현재-미래’의 구분에 ‘기억-직관-기대’라고 하는 의식의 계기가 대응한다는 제안은 이러한 관심의 결과물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기억론과 시간론이 학술적 관심에서만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의 관심은 실존적이다. 자신이 처한 현재의 정황이 여전히 탐욕으로부터 면제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에 실존적 고뇌를 거듭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진정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탐욕의 문제를 과거(탐닉)-현재(절제)-미래(안식)의 계기를 따라 성찰하려는 것이 이 글의 기본 골격이다. ‘거룩해야 하는’ 목회자가 되어있지만, 여전히 탐욕의 유혹에 뒤섞여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아우구스티누스는 현재적 자화상이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탐욕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인식했다.

내 기억 속에는 과거 나쁜 습관이 새겨둔 여러 쾌락의 이미지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sup>13)</sup>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러한 고백은 현재의 자신에 대한 실존적 고뇌와 한탄에 그치지 않는다. 탐욕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성찰에는 세 가지 계기가 연계된다. 탐닉으로 치닫던 과거의 탐욕에 대한 회개, 현재의 탐욕에 대한 절제와 은혜의 간구, 그리고 탐욕으로부터 면제되고 은혜로 치유되어 안식할 미래에 대한 기대가 긴밀하게 연관되는 구조이다. 이것을 풀어낼 중심이 ‘『고백록』 10권의 시점’이다. 여기에서, 처음에 제기한 문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회심하거나 성직에 임직되면 그 순간부터 탐욕은 사라지고 단숨에 성화되는 것일까? 회심도 했고 목회자까지 되어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탐욕의 문제는 결코 ‘손쉬운 싸움’

13) *Confessiones*, X, 31, 41.

의 대상이 아니었다. 영웅적 정신력으로 절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탐욕의 집요함은 ‘과거-현재-미래’의 계기들을 통해 성찰해야 할 실존적 난제이며 은혜에 의한 치유와 안식을 기대해야 하는 ‘거인과의 싸움’이 있다는 점은 현대인,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통찰이 아닐 수 없다. 『고백록』 10권의 시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 2. ‘cupiditas’로서의 ‘탐욕’과 ‘caritas’로서의 ‘윤리’

『고백록』 10권의 시점에서 탐욕의 문제를 읽어내기 전에, 짚어 둘 것이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탐욕이라는 단어는 극복해야 할 윤리적 과제라는 뜻보다 더 무겁게 사용된다. 탐욕에는 식탐, 명예욕, 정욕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지만, 개별적 유혹이라는 뜻보다 더 큰 의미로 사용된다. ‘탐욕’은 ‘어긋난 사랑’으로서의 쿠피디타스(cupiditas)에, ‘윤리’는 ‘바른 사랑’으로서의 카리타스(caritas)에 해당한다.<sup>14)</sup>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사랑이라는 용어는 인간의 모든 심리적 에너지가 집중하는 상태 혹은 의지와 욕망을 총괄하는 것으로서, 탐욕은 질서에 어긋난 사랑 혹은 욕망을 뜻한다. 카리타스와 쿠피디타스는 사랑, 의지, 욕망에 대한 가치평가이다. 카리타스가 질서있는 사랑(ordō amoris)이라면, 탐욕은 어긋난 욕망으로서의 쿠피디타스에 해당한다. 특히, 『고백록』에서 사용되는 탐욕 개념은 어긋난 사랑의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용된다. 요약하자면, 다음 두 가지에 해당한다.

14) 영어로 ‘cupidity’(탐욕)와 ‘charity’(박애)로 번역하지만, 라틴어 ‘cupiditas’와 ‘caritas’에 동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용법에는 가치의 질서 개념이 개입된다. 탐욕은 일상적 의미에서의 극복과제라기보다 어긋난 사랑으로서의 cupiditas에 해당한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사랑으로서의 caritas의 상대어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서는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와 덕 윤리』(북코리아, 2014)를 참고하기 바란다.

- ① 카리타스의 상대개념으로서의 쿠피디타스(어긋난 사랑)
- ② 쿠피디타스의 구체적 예를 보여주는 욕망(어긋난 욕망)

말하자면, 『고백록』에 나타난 쿠피디타스의 구체적 예들이라 할 수 있는 식탐, 정욕, 명예욕과 같은 ‘어긋난 사랑으로서의 탐욕’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극복과제(과거)였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 후 예배와 경건 및 절제의 노력을 통해 카리타스를 추구하고 있는 중에도 쿠피디타스로서의 탐욕은 여전히 집요한 유혹으로 작용하고 있으며(현재), 종말론적 미래에 치유되고 안식하게 될(미래) 과제이다. 이러한 뜻에서, 『고백록』에 나타난 탐욕의 구체적 사례들과 그 극복을 위한 노력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쿠피디타스에서 카리타스로 전환해 나아가는 과정에 해당한다.

### 1) ‘카리타스 없는 쿠피디타스’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탐욕의 과거는 ‘카리타스 없는 쿠피디타스’(cupiditas sine caritas)의 시기였다. 『고백록』 10권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탐욕의 집요함에 주목한다. 회심하여 신앙인이 되고, 히포교구의 목회자로 임직되었다고 해서 쿠피디타스로서의 탐욕이 소거된 것은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식탐과 정욕을 비롯한 탐욕의 흔적들이 단숨에 절제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오히려, 과거로부터 이어온 끈질긴 상대라는 점에서, 탐욕의 극복은 지난한 과제였다. 예를 들어, 깨어있는 동안에는 절제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성적인 꿈을 꾸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유혹이 자신의 과거에서 기인한 것임을 깨달았다.

원하지 않아도 꿈속에서 떠오르는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요? 그 허상들을 받아들이는 동의를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금욕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sup>15)</sup>

실제로, 『고백록』에서, 탐욕의 과거에 대한 기억은 분량 면에서 방대할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간단한 상대가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탐욕의 과거는 ‘세속을 탐하던 영혼’이었다.<sup>16)</sup> 9권까지의 내용 중에서 특히 정욕(concupiscentia)이라고 불리는 성적 탐욕에 관한 회상과 참회는 눈여겨 볼 부분이다. 실제로, 『고백록』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은 성적 탐욕의 문제였다. 16세에 타가스테에 도착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의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 스스로 말한 것처럼, 성적 탐욕에 시간을 허비하고 탐닉했던 때였다.<sup>17)</sup> 이후, 카르타고 유학 당시,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 그 자체에 탐닉해있었고 문란해졌다.<sup>18)</sup> 동거녀를 만나 15년간 동거했지만, 결혼에는 이르지 않았으며 심지어 아들을 얻었으나 아우구스티누스의 동거생활은 자신의 성적 탐욕을 위한 타협수단에 불과했다. 모니카의 개입으로 동거녀와의 오래된 성적 탐욕에서 분리되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오히려 그 자리를 대신할 방법을 찾기에 급급했다. 어린 약혼녀의 혼기를 채우기 위해 2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다른 여인을 만났다고 고백할 정도였다. 새로운 여인은 성적 탐욕을 더 강화시켜 주었으며, 아우구스티누스의 성적 탐욕은 습관화로 치닫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고, 성적 탐욕의 극복

15) *Confessiones*, X, 30, 41.

16) David Brooks/ 김희경 역, 『인간의 품격』(부키, 2015), 333~378.

17) *Confessiones*, II, 2, 2.

18) *Confessiones*, III, 1, 1.

을 위해 기도하던 때도 있었다.

내게 순결을 주소서. 절제를 주소서. 그러나 아직은 마소서.<sup>19)</sup>

이 기도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진실한 기원이었다기보다 그의 혼미스러운 정황을 보여준다. 하비(John F. Harvey)가 말한 것처럼, 그 당시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적 난제들을 해소하고 신앙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단계에서도 정욕의 습관을 오히려 즐기고 있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영적 존재로 인식한 이후에도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사랑의 길, 즉 카리타스를 향하여 결단하여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성적 탐욕에서 해방되는 것만큼은 싫었고 또한 두려웠다. 순결해지기를 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어 그토록 만끽하고 싶었던 정욕의 불길을 꺼버리시지나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다.<sup>20)</sup> 다행스럽게도, 아우구스티누스의 결정적 회심이 이루어진 이후 윤리적 회심을 향한 발걸음이 재촉되고 있었다. 성적 탐욕에 눈먼 탐닉의 시기에, 마니교의 헛된 교설까지 가세하여 극도로 혼란스럽고 절제에 대한 개념조차 희미했던 단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더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암시했던 것처럼, 당시의 문화가 성적 탐욕에 대한 경계심보다는 외설스러운 경향을 보였던 점을 참고할 때,<sup>21)</sup> 아우구스티누스가 성적 탐욕을 탐닉의 대상보다는 절제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

19) *Confessiones*, VIII, 7.17.

20) *Confessiones*, VIII, 7.17.

21)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가 아들의 육체적 성장을 내심 기뻐했을 정도로 당시의 문화는 성적 탐욕을 정죄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으며 학교교육에서 외설적인 문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Confessiones*, I 권에서 III권을 참고하기 바란다.

## 2) '덜 사랑하는 카리타스'

『고백록』 10권에 소개된 현재적 탐욕의 문제를 다룰 차례이다. 탐욕은 여전히 도전적이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로서는 중요한 전환을 맞이하고 있었다. 다름 아닌, 쿠피디타스로부터 카리타스로의 전환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덜 사랑하는 카리타스'(minus caritas)라고 해야 할 듯 싶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원받은 이후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어떤 상태인지를 성찰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외부세계로부터 내면세계로, 다시 기억의 문제로, 그리고 영혼의 문제로 나아간다. 회심하고 목회자로 임직되어 교회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로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랑으로서의 카리타스가 절실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사랑하지 않고 사랑의 목적을 하나로 통합하고 순도를 높여야 할 신앙적, 윤리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는 뜻이다. 모든 탐욕으로부터 면제되고 안식하게 될 종말론적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실천해야 할 카리타스의 현재적 과제는 '절제'였다.

당신께서는 내게 절제하라고 명하십니다. 당신께서 명하시는 것을 행하게 하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sup>22)</sup>

아우구스티누스의 절제에 대한 관심은 이중적이다. 그 하나는 절제를 성경의 윤리적 요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요일 2:16)에 대한 절제를 강조한 부분에 주목하면서, 탐욕을 하나님을 향한 카리타스

22) *Confessiones*, X, 29, 40.

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요소로 인식했다. 이러한 뜻에서, 절제란 인격성숙을 위한 도덕 그 이상의 것으로서, ‘당신께서 주시는 명령’이라 할 수 있다.<sup>23)</sup>

당신께서는 나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요일2:16)을 절제하라고 명하십니다.<sup>24)</sup>

다른 하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성적 응답으로서, 여전히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보여주는 준다. 히포 교구의 목회자로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걸림돌이 될 요소들에 대해 민감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생각한 현재적 유혹들에는 건강유지에 필요한 것 이상의 식탐을 포함하여 일상적인 여러 요소들이 포함된다. 식탐의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건강을 위한 필요가 되는 부분과 유혹이 되는 부분 사이의 경계를 정하기 어려운 측면을 과고드는 유혹이다. 건강에 필요한 만큼과 쾌감에 필요한 정도가 각각 달라서, 건강에는 충분한 분량의 음식이 쾌감을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불분명한 상태를 즐겨하며 그것을 이용하여 스스로를 숨기고 변명한다는 점이다. 매일의 음식에서 오는 쾌락과 싸우는 식탐 그 자체는 단번에 결심하고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식탐을 고쳐주소서. 기록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명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당신께서 힘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sup>25)</sup>

23) 절제(continentia)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을 ‘내적 삶의 윤리’(inner-life ethics)로 해석한 글도 참고하도록 권한다. William E. Mann, ‘Inner-Life Ethics’, Gareth B. Matthews, ed., *The Augustinian Tradi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140~165.

24) *Confessiones*, X, 30, 40.

일상적 탐욕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성찰은 심지어 음악에 대한 쾌감의 문제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찬송의 내용보다 찬송의 선율과 감미로움에 탐닉하는 경우가 그렇다. 찬송 가사의 뜻보다 찬송 음악에 감동될 경우, 애통해야 할 죄를 짓는 셈이라고 말하는 대목은 지나친 예민함이 아닐까 싶을 정도이다.<sup>26)</sup> 이른바, ‘부정적 자기과시’에 기울고 있는 것은 아닐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고백록』 10권의 시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일상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는 탐욕의 문제들에 대해 민감하면서도 건강한 영적 고민과 자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과제는 성적 탐욕의 문제였다. 정욕 혹은 성적 탐욕은 가장 강력한 현재적 유혹이었다. 회심하여 목회자까지 되었지만, 도덕의 근본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sup>27)</sup> ‘리비도’(libido)로 표현된 성적 탐욕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과잉 혹은 탐닉의 단계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의 동료이자 제자였던 포시디우스가 『고백록』 이후의 아우구스티누스를 기록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vita Augustini)에서 말한 것처럼, 마침내 수도원 생활의 독신에 들어가기 전까지 해결되지 못한 난제였다.<sup>28)</sup>

여기에서, 성적 탐욕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을 흥미롭게 해석한 글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가 성과 욕망에 대한 수치심과 죄의식을 심화하고 섹슈얼리티를 터부시하게 된 원인으로 아우구스티누스를 지목하지만, 오히려 아우구스티누스가 당대의 과격한 금욕수도자

25) *Confessiones*, X, 31. 45.

26) *Confessiones*, X, 33. 50.

27) John Harvey, 『고백록, 윤리를 말하다』, 162.

28) 『고백록』 이후의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고백록』과 함께 읽기를 추천하고 싶다. Possidius/ 이연학·최원오 역,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분도출판사, 2008).

들이 주장하는 극단적 금욕과는 다른 길을 열어 주었다는 해석이 그것이다.<sup>29)</sup> 이 해석에 따르면, 아우구스티누스 이전부터 기독교는 결혼과 섹슈얼리티에 대해 로마보다 엄격하고 극단적인 견해를 주장해왔고 섹슈얼리티 자체를 벗어버려야 할 거추장스러운 옷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결혼의 섹슈얼리티를 기독교에서 배제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섹슈얼리티를 신비화하지도 않았다.<sup>30)</sup> 이러한 해석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거룩한 동정을 위한 금욕을 선호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욕망과 쾌락 자체의 소멸을 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담겨있다.<sup>31)</sup>

좀 더 인용하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용한 ‘정욕’(혹은 성적 탐욕)의 개념은 성적 결합을 추동하는 욕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혼자 및 금욕수도자를 포함한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야만 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근원적 근심과 불안의 상징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장 강렬한 기쁨’(summa voluptas)이라고 묘사했던 성적 쾌락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다. 성적 탐욕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불안과 근심의 상징이자 은총과 그 신비를 증언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sup>32)</sup>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 정욕은 적절히 관리하기만 하면 되는 육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혹은 율리아누스가 말하는 것처럼 ‘생식기의 열’(calor genitalis)이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성적 탐욕은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인류가 물려받은 연약한 본성을 보여주는 요소로서, 인간에게서 소멸 혹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본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

29) 안연희, ‘섹스 앤 더 시티: 섹슈얼리티, 몸, 쾌락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 다시 읽기’ 『종교문화비평』 23권(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3), 141~184.

30) 같은 글, 160.

31) 같은 글, 176.

32) 같은 글, 165.

식되고 있다는 해석인 셈이다.

이러한 해석을 참고하여 『고백록』을 읽는다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식탐을 비롯한 일상적 탐욕으로부터 성적 탐욕에 이르는 현재적인 집요한 유혹들로 인해 아직은 카리타스를 완전하게 실천하지는 못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쿠피디타스로서의 탐욕을 벗어나 카리타스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카리타스의 과정으로서의 절제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것이라는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절제라고 불리는 영혼의 덕에 관해 완벽하게 다루기란 어려운 일이며, 절제는 인간이 다룰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야 한다.<sup>33)</sup> 이것은 마니교가 말하는 상호대립적 모순관계의 두 원리, 즉 선과 악의 대립을 넘어서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마니교가 말하는 것처럼, 다른 악에 의해 악을 탄압하는 방식으로는 카리타스를 기약할 수 없다. 절제는 선(은혜)으로 악(탐욕)을 치유하는 방식에 속한다.<sup>34)</sup> 한 마디로, 절제는 ‘위로부터 온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혹은 ‘은혜’에 의한 절제를 갈망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주목한 것은 무엇이였을까? 식탐의 문제를 비롯하여 가장 집요한 탐욕으로서의 성적 탐욕 그 자체의 강력함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향한 카리타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성적 탐욕을 비롯한 유혹들을 명분으로 삼아 약화되거나 순도를 높이지 못하는 정황에 놓여있는 자신의 한계였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너무도 조금만 사랑하는 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한 셈이다.

33) Aurelius Augustinus, 'Of Contenance', translated by C. L. Cornish and H. Browne., *Seventeen short treatises of St. Augustine, Bishop of Hippo*(Oxford: Banter, 1885., reprinted in San Bernardino: Biblio Bazaar, 2009), 243.

34) 같은 글, 269.

누군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되 당신을 위한 수단으로 사랑하지 않고 당신과 동등하게 사랑한다면, 그는 당신을 덜 사랑하는 자입니다.<sup>35)</sup>

여기에서,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minus enim te amat)이라는 표현은 중요하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에 관한 연구에서 고전으로 인용되는 마우스바하(J. Mausbach)의 해석에 따르면, 카리타스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피조물에 대한 집착으로 카리타스의 완전한 발현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sup>36)</sup>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려 의지가 세워지기는 했지만, 탐욕의 쾌락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상태가 문제였다. 이점을 인식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분열된 의지가 습관의 관성에 이끌리어 의지의 노예화로 치달아 마침내 의지를 노예화하는 단계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성적 경계를 잊지 않는다.<sup>37)</sup> 그것은 카리타스를 향한 방향설정과 절제를 통한 노력이 아직은 미완의 단계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인 동시에 탐욕으로부터 면제된 온전한 카리타스를 추구하고자 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 2) ‘쿠피디타스 없는 카리타스’

『고백록』의 흐름을 따라 정리하자면, 탐욕의 미래는 ‘쉽’(안식) 혹은 ‘면제’의 단계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쿠피디타스 없는 카리타스’(caritas sine cupiditas)이다. 이것은 탐욕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 카리타스의 완성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선하게 창조하신 본성을 따라

---

35) *Confessiones*, X, 29.40.

36) Joseph Mausbach, *Die Ethik des heiligen Augustinus*(Freiburg: Herder & Co., G.M.B.H., 1929), 262-263.

37) *Confessiones*, VIII, 5.10.

선한 방향으로의 회복과 치유를 얻는 경지를 기대하게 한다. ‘음식과 위장의 기능을 폐하실 때까지’ 식탐을 비롯한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을 실존적 체험을 통해 절감하면서도 종말론적 소망을 담아낸 문장은 아우구스티누스의 현실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세상에는 날마다 그날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세상 마지막 때, 음식과 위장의 기능을 폐하실 때까지(고전 6:13) 우리는 매일 먹고 마시면서 육체의 소모를 보충합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께서 다함이 없는 만족감으로 공복감을 해소시켜 주시고 썩을 육신을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고전 15:54) 하지만 지금은 먹어야 사는 필연성 안에서 쾌락을 맛보고 있으며 그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sup>38)</sup>

이 문장은 종말론적 완성의 날에라야 마침내 탐욕의 집요함으로부터 쉼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활의 소망이 완성되는 종말론적 미래에 인간이 탐욕으로부터 면제될 것이며, 진정한 행복을 통해 쉼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이러한 뜻에서, 탐욕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은 그의 안식(쉼)의 사상과 연결된다. 『고백록』 1권에서 말한 고백이 탐욕에 관한 성찰에서도 적용되는 셈이다.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당신 안에서 쉼 때까지는 우리 마음이 쉼 수 없습니다.<sup>39)</sup>

38) *Confessiones*, X, 31, 43-45.

39) *Confessiones*, I, 1, 1.

### 3) 성화의 재발견, 사회적 성화에의 관심으로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탐욕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성찰은 초인적 절제를 통한 탐욕의 삭제 혹은 탐욕의 정복을 말하기보다 일생에 걸친 지난(至難)한 과제로서의 탐욕에 대한 경계 및 은혜에 의한 절제의 완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탐욕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초인적 절제의 노력으로 소영웅적 자기과시에 빠지기보다 의지의 통합, 즉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단계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요점이다. 이 부분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유한 기독교적 행복론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모두가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의지의 나약함과 분열로 감각적 쾌락과 결탁하여 하나님보다 열등한 것들에게서 만족을 찾으려는 데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탐욕의 문제는 의지와 행복의 문제와도 연계될 수 있겠다. 탐욕은 카리타스를 통한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은혜에 의해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sup>40)</sup>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문제의식은 탐욕 그 자체에 대한 개인적 영성의 문제라기보다 종교개혁자들의 ‘성화’ 개념에서 해소된다. 19세기 신학자들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성화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지 못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비록 그가 신학용어로서의 성화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해서 성화의 의의와 필요성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을 듯싶다.<sup>41)</sup> 오히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화의 문제가 소영웅주의적인 절제

40)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과 덕 윤리는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와 덕 윤리』를 참고하기 바란다.

41) 사실, 용어의 문제를 따지기 시작하면, 칭의와 성화의 개념 자체를 19세기 신학자들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라는 점에서 심지어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용어사용 여부에 대한

력을 통해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한 것임을 일깨워줌으로써,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의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탐욕은 불혹(不惑), 지천명(知天命), 이순(耳順)의 단계로 노화되는 과정에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며, 도인(道人)의 경지 혹은 내공(內攻)이 높은 자들의 반열에 올라섬으로써 해소되는 것이라기보다 은혜 안에서 윤리적 실천을 요청하는 과제라는 뜻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우어워스의 아우구스티누스 해석에 관심할 필요가 있다. 하우어워스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형성시켰고 특히 회개의 윤리전통을 세웠다고 평가한다.<sup>42)</sup> 탐욕의 성화를 위한 회개의 중요성 및 은혜에 대한 위탁을 강조했다. 이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중요한 고전이라 하겠다. 특히, 하우어워스는 성품에 대한 접근에 두 관점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성품논란’(character trait)이고 다른 하나는 ‘성품함양’(having character)이다.<sup>43)</sup> 행위의 원인을 성품 탓으로 돌리는 소극적인 관점보다는 성품의 함양을 말하는 관점을 취하여 내러티브적 정체성에 기초한 성품함양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취지이다.

하우어워스의 이러한 관점은 그리스도인의 성품함양이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sup>44)</sup>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

---

논란이 생길 수 있겠다. 문제는 칭의와 성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성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아우구스티누스를 해석한 글들을 참고할 수 있겠다. 박영실, “어거스틴의 구원과 성화”, 『신학지남』 73-1집(신학지남사, 2006), 159~179. 이은선, “기독교 영성과 성화: 어거스틴의 영성과 성화”, 『성경과 신학』 23권(한국복음주의 신학회, 1998), 381~406.

42) Stanley Hauerwas, “How Christian Ethics Came to Be” in John Berkman and Michael Cartwright, ed. *The Hauerwas Reader* (Durham : Duke University Press, 2001), 38.

43) Stanley Hauerwas, *Vision and Virtue: Essays in Christian Ethical Reflection*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53.

44) 같은 책, 67.

록』 10권의 시점’에서 탐욕의 문제를 구체적인 예로 삼아 쿠피디티스를 카리타스로 전환시키려 했던 것과 어울리는 부분일 듯싶다. 하우어워스가 말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성품함양’(having Christian character)은 내적 성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복음의 사회적 증인으로서의 교회가 짊어져야 할 책무이자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뜻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질문이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은 개인의 삶에 관한 것 내지는 니버(R. Niebuhr)의 용어처럼 ‘개인윤리’에 그치는 것일까? 사회윤리(social ethics)를 위한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개인으로서의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목회직을 맡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적’ 고백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의 통찰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조명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칼뱅이 제네바에서 시도했던 경우를 포함하여, 웨슬리가 종교개혁을 이어 성화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성화를 ‘사회적 성화’(social sanctification)로 확장시킨 점에 관심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칭의와 성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신앙과 윤리를 통합시키고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되, 성화의 사회변혁적 의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sup>45)</sup>

솔직히, 성화의 산실이여야 할 교회까지 탐욕이 구조화되고 고착화된 정황에서, 사회적 성화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을 바탕으로 이렇게 질문해야 할 때일 듯싶다. ‘교회는 과연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가?’ 교회의 개혁에 대한 기대가 실효적일 수 있을지를 묻는 현실적 질문들 앞에 무력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성화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됨을 위한 자성과 자정이 절실해 보인다. 나아가, 교회가 성화에 대한 관심을 바르게 인식하고 구현하는 것은

45) 홍순원, “성령과 사회적 성화: 존 웨슬리의 성령론적 윤리”, 『신학과 실천』 35호(한국실천신학회, 2013), 578.

그리스도인과 교회만을 위한 과제이기를 넘어 사회적 성화를 향한 관심으로 이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탐욕의 시대를 위한 사회윤리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노력이 요청된다.<sup>46)</sup> 요컨대, 성화에 대한 바른 인식이 절실하며 사회적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III. 나오는 말

종교개혁 500주년에 즈음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윤리 개혁이 절실하다. 이 글은 특히 ‘탐욕’의 극복과 성화를 윤리개혁 과제의 하나로 상정하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성찰을 현대적으로 재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고백록』 10권의 시점<sup>47)</sup>에 유의하였다. 회심하였을 뿐 아니라, 히포 교구의 목회자로 사역 중이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성은 탐욕의 문제가 결심만 하면 단숨에 극복되는 것이라기보다 집요한 실체적 도전이자 회개와 은혜에 대한 위탁이 절실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성찰에 따르면, 탐욕의 문제는 우연발생적 내지는 일회적 유혹의 문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탐욕은 과거의 기억 속에 탐닉의 기제로, 현재의 현실 속에 절제의 과제로, 그리고 종말론적 미래에 안식의 기대로 이어지는 지난한 문제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탐욕을 넘어 성화에 이르러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으며, 탐욕의 실체적 집요함을 직시하고 칭의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근간으로 삼아 성화를 위한 회개와 은혜에 대한 위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나아가, 탐욕의 극복과 성화의 문제

46)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라. 문시영, “탐욕의 길 vs. 제자의 길: 본회퍼 윤리의 한 응용”,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8집(한국기독교학회, 2015), 177~201.

는 개인의 영적, 도덕적 성숙의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성화를 위한 관심으로 이어져야 할 개혁과제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진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나타난 은총론”, 『신학논단』80집, 연세대학교, 2015.
- 문시영, 『지식을 만드는 지식 천줄읽기: 고백록』, 지식을 만드는 사람들, 2008.
- \_\_\_\_\_,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읽기』, 세창미디어, 2014.
- \_\_\_\_\_, 『아우구스티누스와 덕 윤리』, 북코리아, 2014.
- \_\_\_\_\_, “탐욕의 길 vs. 제자의 길: 본회퍼 윤리의 한 응용”,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8집, 한국기독교학회, 2015, 177~201.
- 박영실, “어거스틴의 구원과 성화”, 『신학지남』73-1집, 신학지남사, 2006.
- 선한용, 『성 어거스틴에 있어서 시간과 영원』, 성광문화사, 1986.
- \_\_\_\_\_,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대한기독교서회, 2011.
- 성염, “명저탐방: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철학교육연구』11집, 철학교육학회, 1995.
- 안연희, “섹스 앤 더 시티: 섹슈얼리티, 몸, 쾌락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 다시 읽기” 『종교문화비평』23권,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3.
- 이은선, “기독교 영성과 성화: 어거스틴의 영성과 성화”, 『성경과 신학』 23권, 한국복음주의신학회, 1998.
- 홍순원, “성령과 사회적 성화: 존 웨슬리의 성령론적 윤리”, 『신학과 실천』35호, 한국실천신학회, 2013.
- Augustinus, Aurelius, ‘Of Continence’, translated by C. L. Cornish and H. Browne., *Seventeen short treatises of St. Augustine, Bishop of Hippo*, Oxford: Banter, 1885., reprinted in San Bernardino: Biblio Bazaar, 2009.
- Brooks, David/ 김희경 역, 『인간의 품격』, 부키, 2015.
- Burnaby, John, *amor Dei : A Study of the Religion of St. Augustine*,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7.
- Gilson, Étienne / 김태규 역,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이해』, 성대 출판부, 2010.
- Harvey, John / 문시영 역, 『고백록, 윤리를 말하다』, 북코리아, 2011.
- Hauerwas, Stanley, Burrell, David & Bondi, Richard eds., *Truthfulness and*

- Tragedy: Further Investigations into Christian Ethic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7.
- Hauerwas, Stanley, “How Christian Ethics Came to Be” in John Berkman and Michael Cartwright, ed. *The Hauerwas Reader*,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1.
- \_\_\_\_\_, *Vision and Virtue: Essays in Christian Ethical Reflection*,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 Matthews, Gareth B., ed., *The Augustinian Tradi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 Mausbach, Joseph, *Die Ethik des heiligen Augustinus*, Freiburg: Herder & Co. G.M.B.H., 1929.
- Nygren, Anders / 고구경 역, 『아가페와 에로스』,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 Possidius / 이연학 · 최원오 역,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 분도출판사, 2008.
- Thompson, Christopher J., *Christian Doctrine, Christian Identity*,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9.
- Williams, Daniel D., *The Spirit and the Forms of Love*, New York: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81.

논문투고일: 2016년 2월 23일

심사개시일: 2016년 3월 11일

게재확정일: 2016년 4월 09일

---

 • 국 문 초 록 •
 

---

이 글의 목적은 성화의 재발견을 통해 사회적 성화를 위한 관심을 촉구하는 데 있다. 종교개혁 500주년에 즈음하여, 윤리 개혁이 절실해지고 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 중에서, 특히 탐욕의 시대로 규정되는 현대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윤리개혁을 위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10권의 시점(視點)을 통하여 탐욕의 문제에 관한 고전과의 대화를 시도하였다.

논문에서는 『고백록』 10권을 회심하고 목회자로 임직된 후에도 집요한 탐욕에 시달리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현재적 자화상’으로 해석하였다. 10권의 시점을 중심으로 『고백록』 전체에 나타난 탐욕의 문제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을 성찰하되, 목회자가 된 이후에 탐욕으로부터 면제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탐욕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현재의 자화상을 중심으로 탐욕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짚어보았다. 아우구스티누스로서는 성경의 교훈(요일 2:16)을 따라 모든 정욕을 절제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절제의 윤리는 단숨에 구현되는 것이 아니었고 탐욕의 집요함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고백록』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카리타스 없는 쿠피디타스’(과거), ‘미완성의 카리타스’(현재), 그리고 ‘쿠피디타스 없는 카리타스’(미래)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탐욕의 절제란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화되어 해소되는 것이 아니며, 금욕을 통해서도 완전하게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힘입어 성화되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일깨워준 셈이다.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이 글은 글로벌 탐욕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과제를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그리스도인은 (1)금욕과 절제를 넘어 은혜에 의한 성화의 존재가 되어야 하며, (2)사회적 성화를 위하여 관심해야 한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종교개혁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성화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도덕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나아가, 글로벌 탐욕의 시대에 사회적 성화를 위한 윤리적 실천에 관심해야 한다. 말하자면, 정의와 성화의 가치를 바르게 재발견하고 사회적 성화를 위한 실천적 관심이 절실하다. 아우구스티누스를 다시 읽는 목적은 탐욕에 휘둘리는 인간의 재발견을 통해 교회가 성화를 구현할 윤리개혁에 나서야 할 때임을 강조하는 데 있다는 뜻이다.

주제어: 윤리 개혁, 탐욕, 절제, 성화, 『고백록』